미얀마, 출가 꿈꾸는 여성 늘고있다

여성은 선업의 부족으로 받은 성(gender)이며, 아무리 수행해도 띨라(thila)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곳, 미얀마(일명 버마)에서 출가를 꿈꾸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가 최근 'Buddhists in Pink' 라는 타이틀의 보도 영상물을 자사 웹사이트 뉴스 코너에 게재하고, "동시대 미얀마 여성들이 빈곤과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교계를 두드리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양곤 북쪽 지역에 자리한 '아웅 따와다 여성 출가 학교(Aung Thawada Nunnery School, 이하 아웅 따와다)' 를 집중 취재한 이번 보도 영상물에 따르면, 최근 입학을 희망하는 여성의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그 연령층도 부모의 손을 잡고 찾아온 9세의 어린 소녀에서 삶의 뒤안길에 선 94세 할머니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뉴욕 타임즈〉는 "여성은 전생에 남성보다 선업이 부족하여 현생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한 미얀마 사회에서 불교가 여성들의 탈출구가 되고 있다"며 "이는 미얀마에서 여성 수행자를 일컫는 '띨라' 나아가 '비구니' 라는 위치가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는 실례"라고 강조했다.

뉴욕 타임즈의 이번 영상물은 '아웅 따와다' 의 공동 운영자인 담마 바자야(Ven. Dhamma Vijaya) 스님과 모리니(Ven. Molini) 스님의 도움으로 제작될 수 있었다. 상좌부 불교 전통을 이은 두 스님은 인도에서 함께 공부한 후 미얀마 양곤 인근에 '여성 출가 학교' 를 공동 설립하고 미얀마 여성 불교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웅 따와다의 시작은 강제 결혼을 한 채 노예에 가까운 생활로 연명하고 있는 어린 소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자는 데 있었다"는 담마 바자야 스님은 "인도와 미국 등지에 함께 수행했던 도반들에게 힘입어 지금의 학교가 설립, 운영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얀마 여성출가학교 '아웅 따와다' 의 공동 운영자인 담마 바자야(Ven. Dhamma Vijaya) 스님과 모리니(Ven. Molini) 스님(좌), 미얀마 사회에서 불교가 여성들의 탈출구가 되고 있다(우).

NYT, 보도영상 'Buddhists in Pink' … '아웅 따와다' 조명
모리니 스님, '띨라' 에서 '비구니' 로 나아갈 것

〈뉴욕 타임즈〉는 세계적인 불교 저술가 히로코 카와나미(Hiroko Kawanami) 씨의 '1990년 미얀마 불교계 상황' 이라는 문건을 인용, "당시에는 미얀마에서 '비구니' 란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이는 상좌부 불교 전통을 따르는 나라에서는 출가를 희망해 사원 생활을 하는 여성 불자들에게 비구니계를 줄 수 있는 계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경전에서도 비구니 승단을 언급하고 있을 만큼, 불교에서 여성 수행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전제한 모리니 스님은 "이는 동시대 불교에서도 여성 수행자의 자리매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미얀마의 현실이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고 "미얀마 여성 불자들의 희망이 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이 증대된다면 '자리매김' 이 되질 않겠느냐"며, 비구니계단의 설립을 희망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가 1980년 시행한 '승단 인구 조사' 에서 30만명의 남성이 비구와 사미의 신분에 있었고, 반면 3만명의 여성은 비구니와 사미니로 있었다. 이는 승단의 10명중 9명이 남성이며 여성은 1명에 불과한 셈이다. 그런 비율은 2008년 시행한 '승단 인구 조사' 에서도 반복된다. 이에 따르면 56,839개의 사원에서 18세 이상의 스님은 24만 6천명, 18세 이상 행자는 30만명인데, 이중 여성의 비율은 스님과 행자 통틀어 4만 3천명에 불과하다. 1980년 상황과 크게 변한 게 없다.

오종욱 편집위원

아프리카에서 열린 국제 불교 영화제

국제 모임 '심리 탐구 영화' 주최 … 라비아 반도 일대서
오는 27일까지 '비범한 왕' '양시' 등 총 30여 편 상영

인간의 의식을 주제로 다룬 영화를 연구하는 국제 모임인 '심리 탐구 영화(Exploring Consciousness Films' 가 아프리카 라비아(Labia) 반도에서 처음으로 국제 불교 영화제를 개최됐다.

10월 13일 빅트레스 히치콕(Victress Hitchcock) 감독의 '축복-티베트의 촉니 낭첸 스님(Blessings: Tsoknyi Nangchen Nuns of Tibet)' 과 '강철 새가 날아오를 때-서구에 전해진 티베트불교(When the Iron Bird Flies: Tibetan Buddhism Arrives in the West)' 두 편의 개막작으로 시작된 국제 불교 영화제는 아프리카 불자들의 관심 속에 10월 27일까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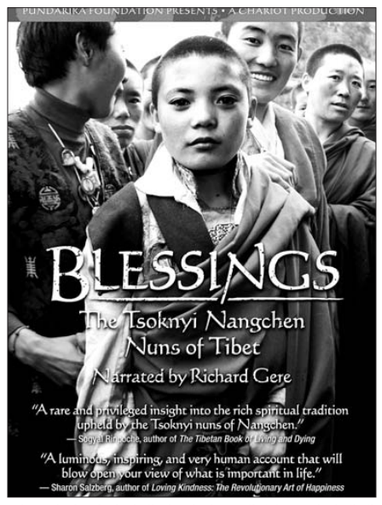
'축복 …' 은 티베트 사원의 안팎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낸 영상에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의 해설을 덧붙인 것으로, 티베트 불교계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여성 불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강철 새…' 는 티베트 불교와 서구 문화 사이의 복잡하지만 긴밀한 상화 작용을 탐구하고 있다.

'심리 탐구 영화' 는 1996년 아프리카 케이프 타운을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 모임으로 '종교 등의 고대의 지혜를 동시대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라는 화두로 2년마다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 모임을 이끌고 있는 에릭카 반 그레넨(Erika van Greunen) 감독은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불교이고, 고대의 종교를 공유하기 위해서 빅트레스 히치콕(Victress Hitchcock)의 작품을 개막작으로 선택했다"며 "불교와 그 삶의 방식은 서구에서도 주목 받고 있어, 다른 상영작품을 선정하는데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 불교 영화제에서는 티베트 왕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현대를 살아가는 방편을 조명한 '비범한 왕(An Uncommon King)' , 13세기 일본 불자의 생활을 묘사한 예술 영화 '선(Zen)' , 카트만두의 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 소년의 고민을 다룬 '외아들(The Only Son)' , Dilgo Khyentse Rinpoche의 환생으로 추앙받는 20세 청년의 수행과 삶을 따라간 '양시(Yangsi)' , 살아가고 있는 자체에 행복을 느낀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메튜 리처드의 헌신(The Devotion of Matthieu Ricard)' , 티베트의 위대한 지도자 칼마파의 삶을 조명한 '칼마파(Karmapa)' , 메콩강가에 번성했던 고대 불교 문명을 다룬 '불법의 강(Dharma River)' 등 30여 편이 상영된다.

"불교는 동서양에서 문화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는 에릭카 감독은 "이는 세계 곳곳에서 불교적 사유에 근거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과연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불교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이번 영화제의 주제라면 주제"라며 "영화 상영과 함께 진행되는 토론회야 말로 이번 국제 불교 영화제의 백미"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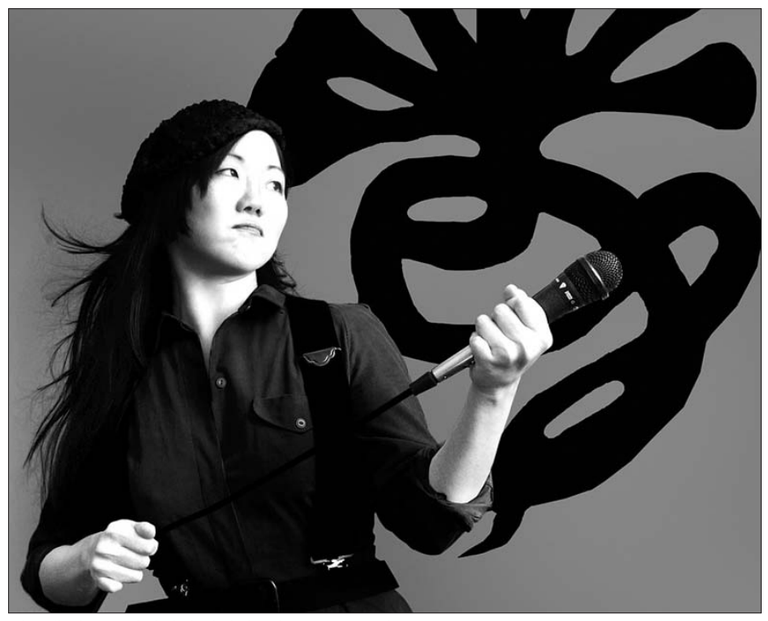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열린 국제 불교 영화제에서 빅트레스 히치콕 감독의 영화 'Blessing' 이 개막작으로 상영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한국계 美 코미디언 마거릿 조

자비와 명상으로 웃음에 깊이 더해



한국계 미국 코미디언인 마거릿 조(Margaret Cho)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청층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인기 드라마 '체인징 디바(Drop Dead Diva)'에 테리로 출연중인 마거릿 조(Margaret Cho). 한국계 미국 코미디언인 그녀의 한국 이름은 조모란이다.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단독으로 진행할 정도로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명상애호가로도 알려진 그녀는 자신의 집에 있는 보물 1호가 불상이라고 이야기한다. 2012년 12월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블로그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자비 명상글을 올리기도 했다.

"오늘 이 끔직한 사건을 당한 모든 부모의 비통함을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같이 느껴보려 애써도 내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이란 건 다만 알맹이 빠진 텅 빈 상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두에게 내 모든 사랑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존중하며 내 침묵을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을 들이마시고 여러분이 두 눈을 감고 쉴 수 있도록 내 안의 평화를 내보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을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사랑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러분에게 내 모든 사랑을 보냅니다. 부디 받아주시길. 제발."

아시아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지 10대 시절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없었던 그녀는 당시 또래 친구들과 사귀는 것도 싫었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다고 했다. 14살 때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코미디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후 1996년에 데뷔, 지금까지 코미디를 계속 해오고 있는 마거릿의 개그소재는 자신의 사회적 핸디캡이다. 아시아와 미국의 문화적 차이가 주요 개그주제다. 그녀의 코미디를 "너무 아시아 같다(Too Asian)"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웃음으로 승화시켰다.

그녀가 불교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샴발라 선(Shamhala Sun)' 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강조한 단어중 하나도 고통이었다.

"누구도 고통을 면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통을 피하려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구요. 고통은 살아있음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을 예술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건 고통을 표현하는 위대한 방식이 될 거에요"

연민, 동정, 사랑 이라는 단어 또한 그녀가 즐겨 말하는 단어들이었다.

"우리 모두 같은 고통, 같은 감정을 느끼기에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그녀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공감함으로써 그 사람 속으로 빠져 들어가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어디에 뿌리내려야 할지를 알고 있는 그녀는 그래서 단순히 웃기기만 하는 연예인이 아니다. 평소 거침없는 정치적 견해와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활동으로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것도 자비와 공감을 토대로 한 불교적 세계관을 가졌기에 가능했다. 덕분에 마거릿은 2003년 아시안 법률교육재단 행동정의상과 2004년 민권연맹 인권상 수상에 이어 2006년 8월 미국 독서캠페인 모델을 할 만큼 모범적인 사회활동가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